## 이재명, 친문 지지 기반 다지고 원팀 선대위 박차

문 대통령 회동 '계승자 '자임 현 정부와 차별화 논란 불식 정세균 • 추미애와 연이은 만남 대선후보 등록 "소명 다하겠다"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 경기지사 사퇴에 이어 문 대통령과 의 만남을 통해 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으로 평가되 는 '친문'의 마음을 얻는 공식 행보에 본격 나서면 서 당내 결집을 이끄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다. 이 후보는 또, 지난 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 동한 데 이어 정세균 정 총리와 만나는 등 당내 핵 심 지지층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며,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.

이 후보가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호남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앞선 당내 경선 에서 호남 출신 이낙연 전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치 르면서 상처를 입은 지역 정치권을 향해 이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손을 내밀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

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차담 형식으로 면담을 하면서 "저는 경기 도지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니냐"며 "앞으로 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,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공통점을 부각하면서 그 성과를 잇는 4기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. 최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'이재 명 정권교체론'을 거론하면서 친문 진영 일각에서 의구심을 표하는 가운데, 현 정부와의 차별화 논란 을 불식시키며 친노·친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.

지난 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한 이후 '원팀 선대위' 구성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. 이 후보 측 과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들과도 실무

협의를 곧 시작할 방침이다.

이 후보는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공식 일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이 후보는 26일 오후 정 전 총리와 만났다.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 출마를 선 언하고 경선 레이스에 참여했다가 호남 순회 경선 을 약 2주 앞둔 지난달 13일 중도 사퇴했다. 그는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와는 거리를 뒀다.

이 후보는 또 27일에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추미 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하는 등 함께 경쟁했 던 다른 경선 주자들과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. 치 열했던 경선과정의 후유증을 털어내고 '원팀' 기조 로 본선 행보에 속도를 높이면서, 당면 과제인 선대 위 구성을 위해 경선 주자들로부터 협조를 끌어내 려는 의도로 해석된다.

한편, 이 후보는 26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 다.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과 수석대변인 박찬 대 의원이 이날 오전 이 후보를 대신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를 찾아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을 마쳤다. 전날 자정까지 경기지사로 근무한 내 용을 포함한 경력 증명서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제

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"익숙했던 출근길을 떠나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국민께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 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"며 "막중한 책임감 이 어깨를 눌러오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 다"는 다짐의 글을 남겼다. 이 후보는 "이력서 150여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 년을 잊지 않겠다.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송파 세 모녀를 잊지 않겠다.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분들을 잊지 않겠다"고 적었다. 이어 "오늘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내일도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는 삶이 다"며 "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, 사랑하는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"고 다짐했다.

이 후보 측 한 인사는 "이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 로 광주 5·18민주묘역을 방문하는 등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"며 "앞으로, 좀 더 적극 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

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.

### 이재명 "지난 대선 모질게 했던 것 사과드린다" 문 대통령 "1위 후보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"

청와대 회동 무슨 얘기 나눴나

"상처 아우르고 하나 되는 게 중요" 축하와 덕담 나누며 화기애애

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6일 만인 26일, 청와대에서 처음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 보의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. 문 대통령은 치열한 경선 끝에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넸고, 이 후보는 문재 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.

특히, 이 후보는 회동에서 최대한 문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는 데 주력했다. 경선 갈등의 후유 증을 극복하고 여권의 지지세를 결집하겠다는 뜻 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.

회동 장소인 상춘재 앞에 먼저 도착해 있던 이 후보는 조금 뒤 멀리서 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 자 "어른이 오시는데 내려가야죠"라며 상춘재 계 단을 내려가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. 이 후보는 "특별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"라고 인사한 뒤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는 "(사진을) 가보로 간직하겠다"고 했다. 이어진 회동에서 이 후보는 "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전 례에 없을 만큼 높아 놀랍다"고 했고 문 대통령은

웃으면서 "다행입니다"라고 말했다. 이 후보는 또 "경제발전, 군사강국, 문화강국으로 자리잡은 것 은 다 문재인 대통령 노력 덕분"이라고도 극찬을

두 사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을 떠올리기도 했다. 이 후보가 "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했던 것 사과드린다"고 하자 문 대통 령은 "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"

4년 전 경선에서 비문(비문재인)계의 지지를 받았던 이 후보 측은 TV토론에서도 '1위 때리 기' 전략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으로 날을 세운 바 있다. 문 대통령은 "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하나 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 와 (만난 것은)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"고 평가

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"이번 대 선이 정책경쟁이 되면 좋겠다"며 "대개 언론은 정 책보다는 서로 다투는 네거티브전을 보도하니 아 무리 정책 얘기를 해도 빛이 안 나는데, 그래도 정 책경쟁이 꼭 필요하다"고 당부했다.

이 후보는 경제 문제에 대해 "전체 경제가 좋아 지지만 양극화가 심화하고 서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"며 "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 좋다"고 밝혔다. 이에 문 대통령은 "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"고 조언했다.

특히,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피 하고자 비교적 말을 아낀 반면, 이 후보는 대권을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. 문 대통령이 "다음 정 부가 져야 할 기후위기의 짐이 클 것 같다"고 하자 이 후보가 농담조로 "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"고 한 것이다.

50분간의 회동 끝에 이 후보가 안부를 묻자, 문 대통령은 "피곤이 누적돼 회복되지 않는다"면서 "현재도이가하나 빠져 있다"고 말했다. 그러면서 "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잘해야 하는 극한직업이라 일 욕심을 내면 끝이 없다"라고 덧

한편,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 을 통해 "(회동에서) 대장동의 '대'자도 나오지 않았다. '검찰'이나 '수사'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 다"며 "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" 고 설명했다.

이 수석은 "대북정책 얘기도 하지 않았다"며 "무 거운 얘기를 피하다 보니 가볍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. 이 수석은 "사전에 제가 이 후보 측과 선거 관련 얘기,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 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"고 밝혔다. 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### 이용섭 시장 "민간공원 사업 공명정대하게 추진"

중앙공원 1지구서 현장 간부회의

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에서 첫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 고, 원칙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.

이 시장은 매주 화요일 광주시청에서 개최한 간 부회의를 주요 사업 현장 회의로 전환했으며, 광주 서구 중앙1지구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광주시 간부 12명이 참석했다.

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"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 국 최대 공원면적 비율 확보, 전국 최초 사업시행사 의 초과수익 환수, 전국 최초 협약이행보증금 담보 설정 등 전국적으로 최우수 모범 사례인데도 제대 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일한 만큼 평가를 받 지 못하고 있다"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. 이

시장은 "특히 정치적,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나 각종 의혹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다"며 "모든 책임은 시 장이 질 테니 직원들은 각종 모함이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추 진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이 시장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▲ 경작지 ·훼손지 등에 수목 식재·편의시설 설치 ▲ 묘지 이 장·생태복원 ▲ 산책로 연결 ▲ 풍암저수지 수질 개 선 ▲ 송전탑 지중화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.

이 시장은 이날 첫 현장 간부회의에 대해서는 "민 간공원 사업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 과 원칙에 따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의 를 다지기 위한 것"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### 슬라브옥앙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건 아파트, 빌라, 원룸, 주택, 상가건물, 대형빌딩 등(슬라브 옥상) 시공

#### 옥상지붕공사

슬라브 주택,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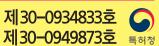
#### 옥상 스틸방수

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

겨울의 차가운 냉기! 어름의 뜨거운 열기!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!



디자인 등록 제30-0934833호



광주·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.

/ 네 062)531-3530, H. 010-9229-3530

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.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

# 大山프리모남네개발

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







특수가발 별매 (원터치)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.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(일요일 정상 영업)



광꾸 남구 쭈월동 1199-12 라인가든아파트 앙가 2층(대광여고 옆)

062.673.5858 (모발모발)